

나무의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!

#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




지난 3월 28일,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'나무권리선언' 선포식이 진행됐다. '인간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권리 역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'는 내용으로 공공조경가 그룹, 자원봉사자 등 고양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글/사진 편집부



## 나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

그동안 우리 삶의 터전은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인해 점차 병들어 갔다. 특히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나무는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·도시 열섬화 등으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만들었다. 이에 나무의 일반적인 가치와 쓰임을 넘어 우리와 같이

한 생명으로 미래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약속하고자 한다. 우선 △수명이 30년 이상 되는 나무는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△통행 불편과 위험 제거 목적을 제외하고 나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한다. △맑은 하천, 백리길 숲길, 바람길 등 하천변에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한다. △도시숲, 짙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. 

## '고양 송포 백송'이 들려주는 나무권리선언

#1

안녕,  
나는 고양시에 사는  
백송 나무야.

조선 세종 때 심어져 어언 585살이 넘었어.  
그사이 나무는 사라지고 마스크가  
일상이 돼버렸지...

#2

혹시 알고 있니?

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 
2.5t 흡수하고 산소 1.8t을 내뿜어.  
그리고 도시숲 1만㎡는  
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~7도까지 낮춰줘.

#3

나무를 지키기 위해  
우리 동네에서  
나무 권리 선언을 했어.

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 
아주 중요한 약속이야.

#4

더 많은 나무,  
더 맑은 공기 속에서  
살고 싶다면  
우리 함께 하지 않을래?

고양 나무 권리 선언

#5

-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.
-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.
-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.
-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.
-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.
-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.
-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.

## 고양 나무 권리 선언

